

News

신한은행·키움증권 등 10개 금융사, 대출 중개 플랫폼 구축한다

뉴스 1

네이버파이낸셜 · 카카오페이 · 토스 등 13개 핀테크 기업까지 총 23개 참여
尹 '과점 체제' 지적에 미온적이었던 금융권, 중개 플랫폼 도입에 속도

5대 은행 독과점 깰 메기라는데... 영국식 '챌린저뱅크' 향한 복잡한 시선

조선비즈

챌린저뱅크, 특화되고 전문적 서비스 제공, 금융시장 경쟁 촉진 위해 영국서 먼저 도입
레볼루트, 개인 1500만명 · 기업 50만개 보유, 외형 성장했지만 수익 내는 곳은 극소수

'공공재' 압박에... 시중銀, 올해 지점 통폐합 규모 절반 줄인다

동아일보

작년 211곳 통폐합한 4대 시중銀, 고령층 등 금융 접근성 문제 감안
"지점 감축 신중" 속도조절 나서, 금감원 "소비자 관점서 계속 점검"

"청약통장 굳이 필요해?"...해지한 사람 속출, 반년새 5조 이탈

매일경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늘면서 예치금이 6개월 만에 5조원 넘게 빠져나감
집값 하락으로 일명 '로또 청약'이 사라지고 있는데다 연 2%대의 낮은 금리가 원인으로 꼽힘

뒤집고 뒤집힌 즉시연금 소송... 대법 판결에 촉각

파이낸셜뉴스

미래에셋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은 최근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재판에 관한 자료를 일제히 제출
개별 재판이다 보니 판결은 각각 나오겠지만 판결의 전체적인 방향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

한숨돌린 한화손보...금융당국, 적기시정조치 유예

서울경제

자본적정성 지표, 지난해 1분기 금융 당국 권고치 밑돌았으나
이후 회복세...금융위, 경영개선명령 미루고 자구책 지켜보기로

증권사들, 줄줄이 신용융자 이자율 낮춰

디지털타임스

연초 이후 CD와 CP 금리 등 조달금리는 내렸지만 융자 이자율은 두 자릿수로 인상에 대해 비판 받아들임
삼성증권, 신용융자의 일부 구간에 대해 이자율을 0.1~0.4%p 인하, 오는 23일부터 적용

해외주식 점유율 살펴보니...토스가 카카오 눌렀다

뉴시스

토스증권의 당기순손실은 324억원으로 전년도 784억원에서 적자 축소
특히 해외주식 거래 증가가 토스증권의 실적을 크게 견인, 키움증권을 제외하고는 업계 7위 수준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